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김치 운영위원회 조직 확정

5월 4일을 “김치신학세미나 후원의 날”로

제 8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 운영위원회 조직이 확정 발표되었다. <표>

운영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일 찬양예배 후 옥담층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에서는 6개 분과의 분과장, 지도 및 실무에 관계된 위원과 당회원 전원이 참석하여 기도회를 갖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분과별 모임은 4월 중 분과별로 가지며, 5월 11일에는 운영위원 전체 모임을 갖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4일(주일)을 ‘김치신학세미나 후원의 날’로 정하였다. 이날엔 그간 약정한 헌금을 드리게 된다. 후원 헌금은 초청되는 한 분 목회자의 항공비용을 10구좌로 하여 전도회나 다락방이 한 구좌씩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는 운영위원회(지도 박귀환 목사)에게 하면 된다.

김치(KIMCHI) 운영위원회

· 원장 이종윤 목사

· 위원장 오정수 장로

· 지도 박귀환 목사

분과	분과장	지도	업무 내용	실행위원
기획·진행	서문석	박귀환	기본계획 수립, 분과별 업무 분담 및 조정, 세부사항 기획 및 주관, 등록 및 숙박, 예배 및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 현장교육 준비 및 진행	· 기획 김세재 이병생 김인숙 우지원 · 진행 왕경래 허희철 김인수 오치열 강종찬 박성현 우정하 · 안내 허 숙 이영희 이명숙 한명순 김상옥 이양순 · 통역 김사라 이대중 홍에스터
시설	조정식	이순환	본당 및 강의실 시설, 식당운영에 따른 시설	허찬우 이인근 이승우 유근중 윤성남 이남성 오유식
의전	하영수	박귀환	영접 및 환송, 차량 계약 및 운행, 주차관리	임훈규 박복남 김재술 조부환 임동규 김용구 이호연
홍보	박두호	김명현	각종 홍보	박동춘 김세하 류종관 김동호 김규태
봉사	이관규	이성득	식사, 의료, 각종 편의 사항에 관한 업무	안인호 정무균 허상한 하인선 마리아·루디아 여전도회원
재정	노송성		예산 수립 및 집행, 결산보고	임상헌 홍성주 윤찬오 이복규 신용식 서상근

데이빗 리알 교수 찬양예배 시 설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데이빗 리알(David Lyall) 교수가 설교한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데이빗 리알 교수는 실천신학학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엔 설교하게 되었다.

오늘 찬양예배에서 데이빗 리알 교수는 시편 46편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된다.

워싱턴 흑인 지도자 다락방 모임 참관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지도자(목사, 변호사, 경찰 및 사회지도자 등) 2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초청으로 미국 내 한흑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이들은 25일(금) 오후 6시에 우리 교회에 도착하여 이종윤 목사로부터 한국 교회와 서울교회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지는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날 20여 명의 지도자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교회에서 가까운 개나리다락방, 성보다락방, 반포다락방 등의 다락방모임을 참관하게 된다.

강남노회남선교회연합모임
5월 1일 우리교회당서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모임이 5월 1일(목) 오후 7시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 모임은 노회 내 회원간 친목과 사명을 다지기 위해 정기적으로 갖는 행사이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21세기 한국교회와 남선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의를 한다.

교구대항 가족찬양대회
5월 11일 찬양예배 시

가족찬양대회가 5월 11일(주일) 찬양예배시에 개최된다. 이 행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고 다락방 식구들과의 좀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 대회에는 가족창, 다락방 중창, 교구 합창 등 다양한 구성과 독창성 넘치는 팀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는 찬양위원회(지도 이성득 목사).

✦ 순례자 컬럼 ✦

사랑으로 치유를

사랑은 모든 덕성을 완성시킬 집합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용서도 이해도 화목도 친절과 부드러운 태도도 흘러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되 참는 이유를 알고 불평없이 기쁨으로 참는다. 억지로 참는 것은 버티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랑의 인내는 아니다.

사랑은 고통의 의미를 알게도 하고 만들게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통해 지혜도 얻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도 없다.

사랑은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게 한다. 사랑이 없는 자는 나약해지고 사랑을 상실한 자는 포박한 자가 된다. 오늘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된 사랑을 회복시키고 정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사랑의 회복으로 가능하며 우리를 개인의 상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때에만 비로소 바른 가치와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창 세기에는 메시아의 예언이 세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8, 갈 3:16 참고)고 하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언의 마지막은 야곱이 유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 속에서 나온 오늘 의본문 말씀으로 실로란 곧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사탄과 그의 일을 파멸시킬 것을,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세 번째 메시아 예언은 모든 주권이 그의 것이며 땅 위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1. 난해한 이름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보냈다(sent)의 의미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땅에 침을 뱉았아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원을 보면 ‘보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로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사61:1).

(2) 평화(peace)의 의미

또 ‘실로’에는 ‘평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로’가 ‘샬렘(Salem)’ 또는 ‘샬롬(Shalom)’과 자음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 것으로 ‘평화를 주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3) 아들(son)의 의미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의 단어는 ‘실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실로’에는 ‘아들’ 즉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 9:6, 마 3:17).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人子), 유다의 아들, 다윗의 아들입니다.

(4) ‘누구에게 속한다’의 의미

히브리어로 ‘누구에게 속한다’,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라는 뜻의 단어가 ‘실로’와 자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실로를 ‘누구에게 속한다, 바친다’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

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족보는 더 위로 올라가면 다윗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이후로 솔로몬과 나단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메시아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실로가 오시므로 이 족보가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의 조상들 가운데는 왕권은 가졌으나 저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호야קים 무자했고 바벨론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조상을 보면 저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쪽은 왕권은 있었으나 저주를 받았고 또 한 쪽은 왕권은 없지만 저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족속을 아름답게 조화시킨 것입니다. 요셉의 계보를 보든지 마리아의 계보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시며 이것은 야곱의 예언대로 실로가 오셨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3. 주(主)의 주(主)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실로에게 모든 족속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 분께 복종하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준 야곱의 축복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형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실로 앞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들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는 선택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실로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종운 목사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앞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49:8 ~ 10)

를 말하는 것 그 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라고 해석합니다.

2. 한 분 실로

실로의 해석은 다양해도 이것은 한 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통치자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마 1:13 - 16). 메시아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요셉의 조상을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계열

▶지금 우리 부서는 - 소망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오~”

박두영(집사, 소망부 부감, 9교구)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차며 설레이는 ‘소망’ .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참 소망.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벧전1:4),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주신 산 소망.

우리 소망부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라는 찬송처럼 참 소망의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는(시68:3) 모습 속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소망부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부서입니다. 지도 우심화 목사님, 부장 이남호 장로님, 부감 김선미 권사님을 비롯해서 남녀 교사 20명이 할아버지·할머니의 손과 발과 귀와 눈이 되도록 정성을 모아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 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루디아 제 1전도회원들은 교구담당이신 박귀환 목사님과 지난 10일 봄내음 가득한 길을 달려 지원교회를 방문하였다. 우리 전도회는 전라도에 있는 농촌교회 세 곳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날은 그 중 서로 인접한 두 곳을 들르게 되었다.

9시 45분 교회를 출발, 버스 안에서 4월 월례회를 하면서 집에서 준비한 김밥으로 차 안에서 점식식사를 했다.

오후 1시 대암교회에 도착하니 이 일준 전도사님(31세) 부부가 우리를 맞아주셨다. 박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고 이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19장 7 - 11절 말씀으로 “두란노 서원의 바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

대암교회가 있는 마을은 60 여 가구였던 동네가 이제는 현재 35가구로 줄어든데다 유교와 불교가 번성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도사님 부부와 온 성도들은 마을을 복음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성도가 되자”는 표어를 정하고 올해 안에 10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농촌 성도 1명은 도시 성도 100명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전도사님은 올해 벌써 2명이 등록했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

오오 -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소망부 집회는 시작됩니다. 우심화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신령한 하늘 만나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우리 신앙을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집회의 마지막은 병 중에 있는 성도들, 교회와 새에배당 건축,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목회자세미나 등



지 난 주일, 고등부실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 학생들을 위한 기도결연예배가 있었다. 40여 명의 고 3학생과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학부모 그리고 고등부 재학생이 한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후원자들은 기도해 줄 학생의 학교, 생일, 전화번호, 기도제목 등이 적힌 기도카드를 받아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손주뻘 되는 학생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해 먼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실제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대학부 선배들, 감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표한 학부모들... 고 3학생들은 이제 할 일은 기도의 힘을 입어 시간을 아껴 최선을 다하는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기도의 끈으로 귀한 만남을 이룬 모습 속에 이곳이 또한 곳의 천국임을 느낄 수 있었다. <글·정규호, 사진·강종찬>

른다. 또 세 개 구역이름을 각각 ‘아시아’, ‘유럽·아프리카’, ‘아메리카·오세아니

▶지원교회 방문기 - 루디아 제 1전도회

대암교회 · 신석교회

한정아(집사, 루디아 제1전도회원)



야’로 붙여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 성도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이곳에 경로잔치 등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전도회 주초 부흥회, 선교버스 구입, 실로암 안과 치료

각종교회 행사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소망부 한 사람, 한 사람은 십자가 든 듯히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할 때까지 산 소망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영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산 역사를 체험하여 영적으로 온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망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망부에 등록하지 않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소망부에 오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섭외 등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셨다. 준비해 간 약간의 선물을 기증하자 전도사님은 감사해하시며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신석교회는 대암교회에서 차로 약 한시간 거리에 있었다. 역시 그곳에서도 박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신석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진수 목사님(55세)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으로 “나는 빛진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

30명의 교인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이고 어린이는 모두 일곱 명으로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는 활기가 없어 보였다. 22년 전에 지어졌다는 신석교회당은 매우 낡아 있었고 같은 해에 지어졌다는 사택 역시 너무 낡아 장마 때엔 홍수로, 여름엔 찌는 듯한 더위로, 겨울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로 고생하신다고 했다. 9년 전 김 목사님의 부임하기 직전에 교회가 양분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4면에 계속)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에 붙여

“축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김광신(장로, 진행위원장)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날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손에 손을 잡은 남녀노소들이 열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해방의 감격이 컸었고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교회가 창립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도 해방되던 감격만큼이나 컸었고 지금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비록 한 집에 같이 살지 않고 한 동네에 같이 모여서 살지 않더라도 한 식구된 감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뜨겁던 우리들의 사이가 약해진 것 같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도 부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 시집보낼 딸은 있는지, 할아버지는 건강하신지, 금년에 취업한 자녀들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첫 손자를 본 할머니의 소감은 어떤지... 모든 것이 알고 싶고 궁금하지만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제 3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철이나 거리에서 만나는 미지의 시민들과도 눈인사 정도는 하며 사는 것이 미국사회인데 우리는 대가족이어서 얼굴 마주치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인지 인사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몇년을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손 한 번

잡은 기억이 없고 따뜻한 인사 한 번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한 분이 이백명과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번 축제는 성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아주고 새가족이 권사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잠실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더 중요하나요? 병 들어 병원에 입원해 계시나요? 사업차 해외에 가셔야 하나요?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안되신가요? 어떤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이날만은, 하루만 비어 주십시오. 손에 손을 잡고 남녀노소가 한 데 어울려 운동장을 돌고 돌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뛰어들며 흥겹게 어울려 보십시오.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을 선포합니다. 구름떼처럼 물려올 것을 꿈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그려보며 사진을 찍어 봅시다.

초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

5월 5일(월) 잠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3면에서 계속)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 원불교당이 신축되면서 몇몇 신자들이 개종하는 일까지 생겼다. 교회가 나뉘므로 해서 상처를 받은 주민들에게 원불교의 포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도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김 목사님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자매교회들을 찾아 전도대회나 간중집회 등을 개최한다면 흐트러진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영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특별순서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다.

빛꽃이 만개한 전주 - 군산간 도로(전군도로)를 달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오늘 돌아본 교회들을 떠올리며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좀더 나은 조건보다는 사명감을 더 중요시하면서 농촌교회를 지키시는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본 두 곳 교회의 실제적인 과제들을 주님께 기도했다.

· 시 ·

개구리



박한샘(사랑부)

개굴아
초록색 옷을 입었구나!

너의 옷 색깔만큼
내 마음도 초록빛

어떻게 그렇게도
팔짝 팔짝 잘 뛰니?

너도 나처럼 목표를 위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나?

넌 왜 비가 오면
개굴 개굴 개굴...

우는거니?
아니면 좋아서 웃는 거니?
넌 슬픔을 뒤로 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구나.

박한샘 군은 87년 생으로 주몽재활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뇌수종1급 장애아인 한샘 군은 서울교회 사랑부에 처음 올 때는 혼자 일어서지도 못했었고 대화가 거의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이제는 매우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목회자 동정

- * 임진태 목사는 지난 주일에 사임하였다.
- * 김명현 목사는 7·8교구를, 이성득 목사는 찬양위원회를, 박귀환 목사는 대학부를 각각 지도하게 되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강』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서울주간교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8차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2.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를 은혜 중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4. 농어촌 자매교회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